

전국문예동지부 무용부  
무용공연

# 우리의 한마음

2011. 8. 7. 東大阪市立市民会館



독무 아리랑환상무 인민배우 리미남



서장 행복의 방울소리(문예동도끼지부, 오사까조고 무용부)

문예동맹원들의 열성과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감동과 자극을 얻었습니다. 우리 규슈에서도 무용을 사랑하는 성원들을 모여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. (황보경수)



무용경연대회 초급부 독무부문 1등  
마이조선무용연구소 김미사



군무 박판무 (문예동도끼지부)

어린이로부터 여성동맹의 어머니들에 이르는 출연자들의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. <일생무용>을 계속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. (류옥금)



군무 그날에 활짝 피리(문예동오사까지부)



군무 봉선화(문예동효고지부)



무용경연대회 중급부 독무부문 1등  
<춤>조선무용교실 김향나



군무 무궁의 사랑(문예동교또지부)

무용을 출때면 언제나 조국에 대한 감사와 조국에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. 조선무용이라는 민족의 씨앗을 학생들에게도 뿌려갈수 있게 무용을 더욱 연구해나가겠습니다. (리유희)



중무 흥바람(오사까가무단)